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우리나라 산재의료보험 의료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일본사례 고찰

□ 과제명

- 수탁-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분석 및 평가항목 개발

□ 출장기간

- 2019년 10월 27일 (일) ~ 10월 31일 (일) (4박 5일)

□ 출장국가(도시)

- 일본 (동경, 교토)

□ 출장자

- 오영호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 10. 27	인천→동경	동경도착		서울 출발→ 동경도착
2019. 10. 28	동경	노재보험 보센터	사카이타니 박사, 후지나카 박사, 카마쿠라, 타케바야시, 오구마, 정진희 (통역)	○ 1차 회의 : 일본의 노재병원 의료기관 평가 기구, 인센티브제도 및 병원기능평가 시설기준 요건, 환자중심의 의료평가 항목 등 ○ 일시 : 오전 10시
	동경	노재보험 보센터	사카이타니 박사, 후지나카 박사, 정진희 (통역)	○ 2차회의 : 일본 병원기능평가 시설기준 요건 추가 보완사항 논의 ○ 일시 : 오후 17시
2019. 10. 29	동경	게이오 대학 교	고토 교수, 야마우치 박사, 정진희 (통역)	○ 병원기능평가 중 병원 질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Tool 등 및 병원기능평가의 역사 기능종별 내용 등 ○ 일시 : 오전 10시
	동경	니세이 기 초 연구소	다카시 박사, 김명중 박사	○ 일본의 의료기능평가 기구의 병원 기능평가 사업, 지속적인 질 개선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일시 : 오후 4시
2019. 10. 30	동경→교토	동지사 대학 교	타카야마 교수, 유키지 교수, 최용훈 교수, 문성현 (통역),	○ 일본의 병원기능평가 항목 중 양질의 의료실천을 위한 항목 검토 ○ 일본의 노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한국의 평가항목, 인센티브제도 및 심사체계 방향 논의 ○ 일시 : 오전 11시
2019. 10. 31	교토→인천			교토-오사카-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일 시	10.28(월) 10:00~11:30
장 소	노재보험 정보센터(일본 동경)
참석자	사카이타니 박사, 후지나카 박사, 카마쿠라, 타케바야시, 오구마 (노재보험 정보센터), 정진희 (통역)
□ 일본 노재병원의료기관 평가 기구 ○ 평가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노재병원은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서 기능평가를 받음. 평가기관은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이며, 후생노동성 산하 공익재단법인임. ○ 평가 인센티브로는 수가 반영에 반영하거나 특정병원 지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 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면, 병원기능평가가 영향을 끼치는 진료수가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 병원기능평가는 진료수가제도 및 각종 제도의 요건 등으로써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음. ○ 또 의료제공체계 및 진료수가를 논의하는 국가의 회의(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등)에서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음. □ 병원기능평가 시설기준의 요건에 포함되는 사항 1) 종합입원체제가산(1일당) ○ 종합입원체제가산1 : 240점 ○ 종합입원체제가산2 : 180점 (시설기준) 공익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등이 실시하는 의료기능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병원일 것 2) 완화케어병동입원료 (1일당) ○ 30일 이내인 경우 : 4,926점 ○ 31일 이상 61일 이내인 경우 : 4,400점 ○ 61일 이상인 경우 : 3,300점 3) 완화케어진료가산(1일당) : 400점 (시설기준) 암진료연계의 거점이 되는 병원 혹은 공익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등이 실시하는 의료기능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병원일 것 4) 감염증방지대책가산1, 감염증방지대책가산2 (시설기준) 공익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등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조) 기본진료료의 시설기준 등 및 그 신고에 관한 절차의 취급에 대해서(통지) 2016년 3월 4일 보의발 0304 제1호 5) 환자서포트체제충실가산 (시설기준) 공익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등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조) 기본진료료의 시설기준 등 및 그 신고에 관한 절차의 취급에 대해서(통지) 2016년 3월	

4일 보의발 0304 제1호」

□ 일본의 병원기능평가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추진 항목

1.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의료

-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서 권리의 옹호에 노력하고 있다.
-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고 있다.
- 환자와 진료정보를 공유해서 의료에 대한 환자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환자지원체제를 정비해서 환자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 환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
- 임상에서의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지역으로의 정보발신과 연계

- 필요한 정보를 지역 등으로 알기 쉽게 발신하고 있다.
- 지역의 의료기능·의료니즈를 파악해서 타 의료관련시설 등과 적절하게 연계하고 있다.
- 지역을 위해 의료에 관한 교육·계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 안전확보를 위한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다.

4. 의료관련 감염제어를 위한 노력

- 의료관련 감염제어를 위한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 의료관련 감염제어를 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하고 있다.

5. 계속적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환자·가족의 의견을 듣고, 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 업무의 질 개선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윤리·안전면 등에 배려하면서 새로운 진료·치료방법 및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6. 요양환경의 정비와 편리성

- 환자·면회자의 편리성·쾌적성에 배려하고 있다.
- 고령자·장애자에 배려한 시설·정비가 되어 있다.
- 요양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있다.

②	
일 시	10.28(월) 17:00~18:00
장 소	다이와 호텔(일본 동경)
참석자	사카이타니 박사, 후지나카 박사 (노재보험 정보센터), 정진희 (통역사)

□ 오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종합임원체제가산, 완화케어병동 임원료, 진료가산, 감염증방지대학가산, 환자서포트체제충실가산 등에 대한 추가 보완적인 논의를 하였음.

□ 종합임원체제가산 : 충분한 인원배치 및 설비 등을 갖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급성기의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체제 및 의료종사자의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는 체제 등을 평가한 가산.

□ 완화케어병동입원료 : 일반병동용 중증도, 의료·간호 필요도의 기준을 채운 환자가 30% 이상이고,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등의 기능평가를 받고 있을 것.

□ 완화케어진료가산 : 주로 고통의 완화를 필요로 하는 악성종양 및 후천성면역부전증후군의 환자를 입원시켜 완화케어를 실시함과 동시에, 외래 및 재택으로의 원활한 이행도 지원하는 병동이며, 해당 병동에 입원한 완화케어를 필요로 하는 악성종양 및 후천성면역부전증후군의 환자에 대해서 가산.

□ 감염증방지대책가산 : 일반병동에 입원하는 악성종양 및 후천성면역부전증후군의 환자 중에 동통, 권태감, 호흡곤란 등의 신체적 증상 또는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증상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어 증상완화에 관련된 전담팀(완화케어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산. 전담 원내 감염관리자가 배치되고 감염방지대책부문을 설치하고 있을 것 등.

□환자서포트 체제충실가산 : 전담 담당자의 배치가 조건으로 한다 등.

③	
일 시	10.29(화) 10:00~12:00
장 소	게이오 대학(일본 동경)
참석자	고토 교수, 아마우치 박사 (게이오 대학), 정진희 (통역)

□ 병원기능평가의 정의 : 병원 질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Tool

○ 일본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직 전체의 운영관리 및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가 중립적·과학적·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Tool

○ (평가대상영역)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가지 평가대상영역(환자 중심의 의료 추진, 양질의 의료 실천 1, 양질의 의료 실천 2, 이념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사용해 병원 조직전체의 운영관리 및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다.

○ (평가조사자 : Surveyor) 각 전문영역(진료관리, 간호관리, 사무관리)을 보유하는 평가조사자가 팀으로 실제로 병원을 방문해 심사한다.

- 적절한 심사를 하기 위해 평가기구는 평가조사자의 요건으로서 병원관리경험 등의 일정한 자격 요건과 평가기구의 연수를 수요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 평가조사자는 중립성 및 공정성을 갖고 심사에 임한다.

○ (인정/인정병원) 병원기능평가에 의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병원은 “인정병원”이 된다. 인정병원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안전·안심, 신뢰와 납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병원을 말한다. 전국의 약 30%의 병원이 병원기능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 평가기구는 인정병원에 대해서 “인정증”, “인정 심볼마크”, “인정병원 포스터”를 배포하고, 국민이 병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병원기능평가의 의의

○ 평가기구는 중립적·과학적인 제3자 기관으로서 의료의 질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 당초부터 연구·실시되고 있는 병원기능평가는 병원이 조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활동(기능)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구조이다.
- 평가 결과, 명확해진 과제에 대해서 병원이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 병원기능평가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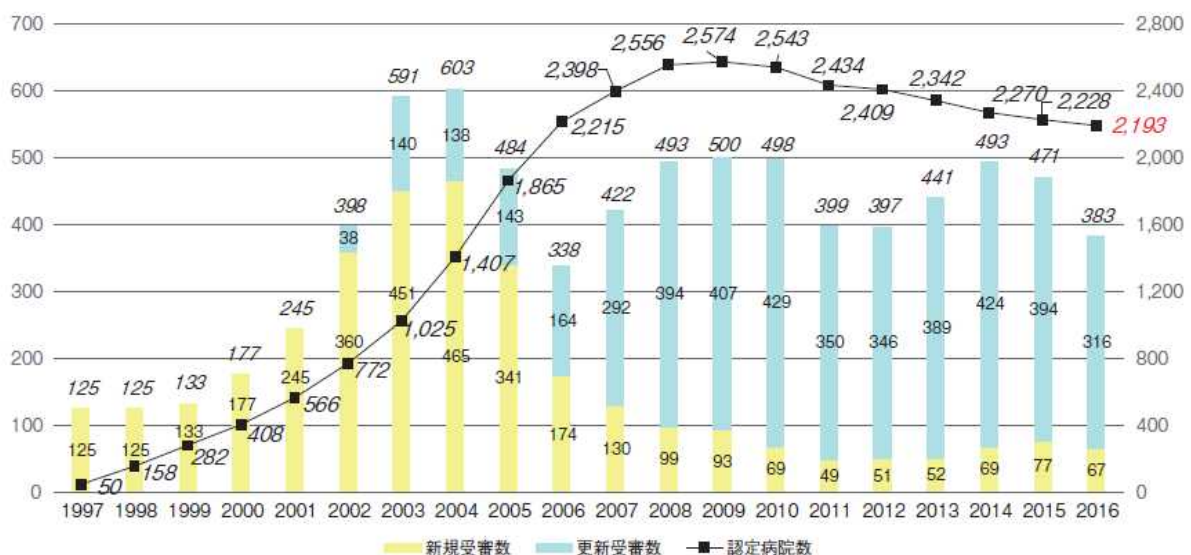
- 병원기능평가는 의료환경과 사회의 변화, 병원의 니즈 등에 따라 병원을 기능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해 병원의 질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있다.
- 2013.4월부터 제3세대((3rdG:Ver.1.0~)를 운용하였다. 2015.4월부터는 보다 충실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을 개정해 Ver1.1을 운용하고 있다.
 - Ver1.1에서는 문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요구하는 평가항목이 추가되었다.

□ 기능종별

- 병원은 역할·기능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기능종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해 심사를 받는다.

기능종별명	내용
일반병원 1	주로 일상생활권역 등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중소규모병원
일반병원 2	주로 2차의료권 등의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급성기이료를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基幹적 병원
만성기병원	주로 영양병상 등에 의해 만성기이료를 담당하는 병원
정신과병원	주로 정신과이료를 담당하는 병원
재활병원	주로 재활이료를 담당하는 병원
완화케어병원(2015년도부터 운용)	주로 완화케어병동 혹은 호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

□ 심사병원 수의 추이 : 신청 8,439병원 중 인정 2,193병원(26.0%)(2017.3월말 현재)



※ 2002년 증가 이유

- ① 갱신심사 실시
- ② 평가기구 홈페이지 평가결과의 공개 실시
- ③ 진료수가 개정시 “완화케어임원가산 등의 시설기준”이 변경
- ④ 의료법 일부개정 : 광고규제의 완화, 의료법인제도 개정에 의한 이사장 요건의 완화
- ⑤ Ver 4.0 개정 : 정신과병동·요양병상의 평가, 부가기능평가(2003)

※ 2004년 증가 이유

- ① “Survey Performance Review”의 개시
- ② 의료법 일부개정(2002) : 신의사임상연수제도의 실시

※ 2006년 감소 이유

- ① 제5차 의료법 개정 : 의료기능정보제공제도 실시, 의료안전지원센터 설립
- ② Ver 5.0 개정 : 케어 프로세스에 관한 평가항목을 변경·이동

※ 2009년 증가 이유

- Ver 6.0 개정 :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정보시스템 관리기능, 의료기
능관리, 임상연수기능, 노무관리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

④	
일 시	10.29(화) 16:00~17:00
장 소	니세이 기초연구소(일본 동경)
참석자	다카시 박사, 김명중 박사 (니세이 기초연구소)
□ 일본의 의료기능평가 기구의 병원 기능평가 사업 ○ 병원은 자기병원의 이념달성 및 지역에 근거해 안전·안심, 신뢰와 납득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자조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더욱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유용하다. ○ 병원기능평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조직 전체의 운영관리 및 제공되는 의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병원의 위치설정 및 문제점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병원의 적극적 개선활동을 추진해 병원체계의 더 한층의 충실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현 상황의 객관적 파악 ○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명확해진다. ○ 병원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에 의해 우수하고 있는 점 및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평점과 평가소견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병원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개선의 동기조성 ○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개선의 동기가 된다. ○ 심사 신청후에 개시되는 서면심사의 조사표를 작성해 자기평가 등에 의해 방문심사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료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서비스의 개선에 연결된다.	

3)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목표의 설정

- 개선해야할 문제점에는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 및 해결이 어려운 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평가를 받음에 따라 효과를 올리는 구체적인 개선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직원의 자각과 개선의욕의 양성

- 제3자로부터 지적되는 것에 의해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관리자도 각 부문의 현장도 개선의욕이 향상하여 주체적으로 노력이 기대할 수 있다.

5) 개선의 방향의 명시

- 심사결과보고서에는 문제점이 지적됨과 동시에, 그 개선의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기구에서는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또 재심사에 의해 그 적절성 및 성과의 확인도 할 수 있다.

6) 인정증에 의한 환자의 신뢰

- 문제점의 개선에 노력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병원에는 인정증이 발급된다. 그것을 원내에 제시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지속적인 질 개선 활동에 관한 지원

- 평가기구에서는 지속적인 질 개선활동에 관한 지원으로써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1) (부가기능평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기능평가(주로 기능·부기능)의 심사 이외에, “응급의료기능”, “재활기능(회복기)”, “완화케어기능”에 특화된 “부가기능평가”를 심사받을 수 있다. 부가기능평가를 활용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능의 추가적인 질 향상에 도움이 준다.

2) (인정병원환자안전추진협의회) 인정병원의 有志들이 주체가 되어 환자안전의 추진을 목적으로 2013.4월에 조직된 협의체이다.

3) (Quality manager 양성세미나) 병원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의 질 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중심이 되는 의료의 질 관리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Quality manager 양성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⑤	
일 시	10.30(수) 11:00~12:30
장 소	동지사 대학(일본 교토)
참석자	타가야마 교수 (경도대학), 유키지 교수, 최용훈 교수(동지사 대학), 문성현 교수 (통역)

□ 일본의 병원기능평가 항목 중에서 양질의 의료실천을 위한 항목 검토

1. 진료·케어에서의 질과 안전의 확보

1.1. 진료·케어의 관리·책임체제가 명확하다.

(평가의 시점)

-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로 안정·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케어의 관리·책임체제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병동, 외래 등에서의 관리·책임체제
- 환자·가족에 대한 명시
- 각 책임자에 의한 진료·케어의 실시상황의 파악

1-2. 진료기록을 적절하게 기재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진료의 기록이 정확하게 지체없이 작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필요한 정보의 기재
- 판독할 수 있는 기재
- 기준에 근거한 기재
- 적시(適時)의 기재
- 진료기록의 내용에 대한 점검(질적 점검)

1-3. 환자·부위·검체 등의 오인 방지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환자 오인방지, 치료부위의 오인방지, 검체 등의 오인방지, 수술전 타임아웃 등의 오인방지 등의 도입과 실시상황을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환자의 확인
- 검사·치료부위의 확인
- 검체 등의 확인
- 튜브의 오인방지대책

1-4. 정보전달 에러 방지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의사의 지시 및 결과 등의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처방전·지시전의 기재
- 의사의 지시 하달·실시 확인
- 지시 수령·실시
- 검사결과 등의 확실한 보고

1-5. 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약제의 오인방지 등 안전사용을 위한 대책이 각 부서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마약 등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
- 고위험(High risk) 약제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관리
- 중독투여, 상호작용, 알레르기 등의 리스크 회피방법
- 부작용의 발현(發現)상황의 파악과 대응

- 약제의 오인방지에 대한 노력
- 병동 재고약제 사용시의 확인방법

1-6. 전도·전략 방지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전도·전략의 리스크를 평가해서 결과에 근거한 방지대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전도·전략의 리스크 평가
- 대책의 입안·실시
- 대책의 실시결과의 평가와 재검토
- 전도·전략 발생시의 대응

1-7.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인공호흡기 및 수액 펌프 등의 의료기기가 필요한 지식을 가진 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사용매뉴얼에 근거한 확인
- 설정조건의 확인과 확실한 전달
- 사용 중의 작동확인

1-8. 환자 등의 급변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CPR)을 훈련하고 있는지, 또 원내 긴급코드가 설정되어 적절하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원내 긴급코드의 설정
- 구급카트 및 소생(蘇生) 장치의 정비·배치 상황
- 정기적인 훈련

1-9. 의료관련 감염을 제어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의료관련감염제어에 관한 매뉴얼·지침에 근거한 각 부서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의 실시상황을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표준예방대책에 관한 준수사항
- 감염경로별 예방대책에 근거한 대응
- 수지위생(손씻기·수지소독)의 철저
- 개인방호용구(PPE)의 착용
- 현장에서의 감염성폐기물의 취급
- 혈액, 체액이 부착된 리넨·침구류의 취급

1-10. 항균약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항균약의 적정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조와 활동을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항균약의 채택·채택중지에 관한 검토
- 항균약의 적정사용에 관한 지침의 정비
- 병원 내에서의 분리균감수성 패턴의 파악
- 항균약의 사용상황의 의사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 기염균·감염부위의 특정

1-11. 환자·가족의 윤리적 과제 등을 파악해,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임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생기는 개별 구체적인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실제의 대응상황을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환자·가족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과제의 파악
- 진료·케어에서의 윤리적 과제를 검토하는 구조
- 해결관련한 윤리적인 문제의 대응

1-12. 다직종이 협동해 환자의 진료·케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

○ 환자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다직종이 협동해 팀으로써 환자의 진찰·케어에 담당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소)

- 다직종이 참가한 진료·케어의 실천
- 필요에 따라 진료과의 범위를 넘은 치료방침의 검토와 실시
- 다직종으로 구성된 전문팀의 개입
- 부서간 협력

□ 일본 노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한국의 시사점

1) 평가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안

-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성과·결과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결과·공공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좀 더 다양화할 필요는 있음.
- 평가항목 개선에 있어서는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 의료기관에 따라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한 평가항목과 비중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여 객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재활인증병원 평가 항목 및 인센티브 개발

- 재활인증병원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재활인증병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평가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활인증병원 가운데 우수 재활인증병원을 판단하여 일반의료기관과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재활인증병원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직장복귀나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는지, 장애등급의 정도 등이 강조되어야 함.

-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행정적 우대보다는 재정적 우대(종별가산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재활인증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체계 개발

- 산재진료의 적정성의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산재진료의 적정성을 어떻게 수치화하여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함. 재활인증기관간 평균진료비는 산재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가능하지만 산재환자가 소수일 때는 단순히 평균진료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